

# 고고기 · 인류세그테빌

25.9.20.Sat-  
10.12.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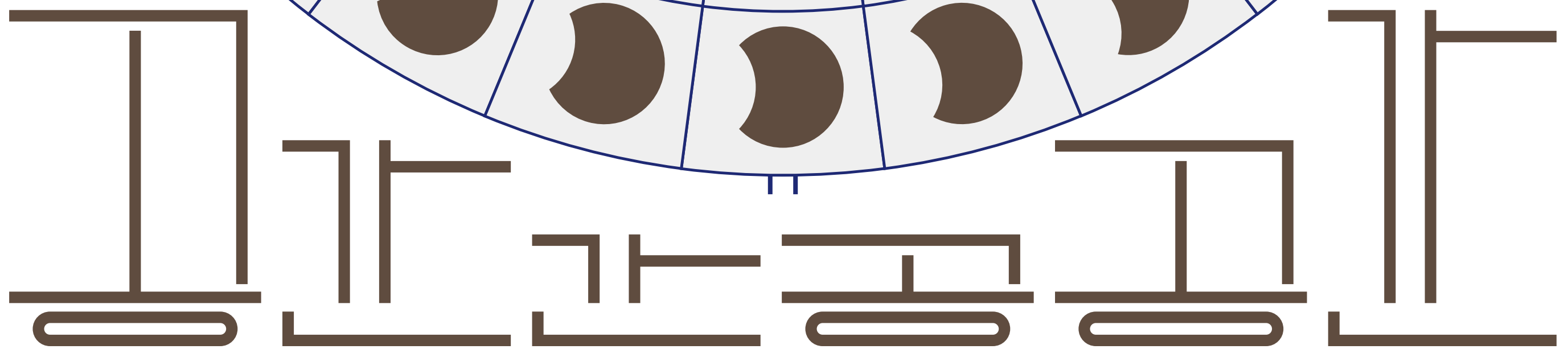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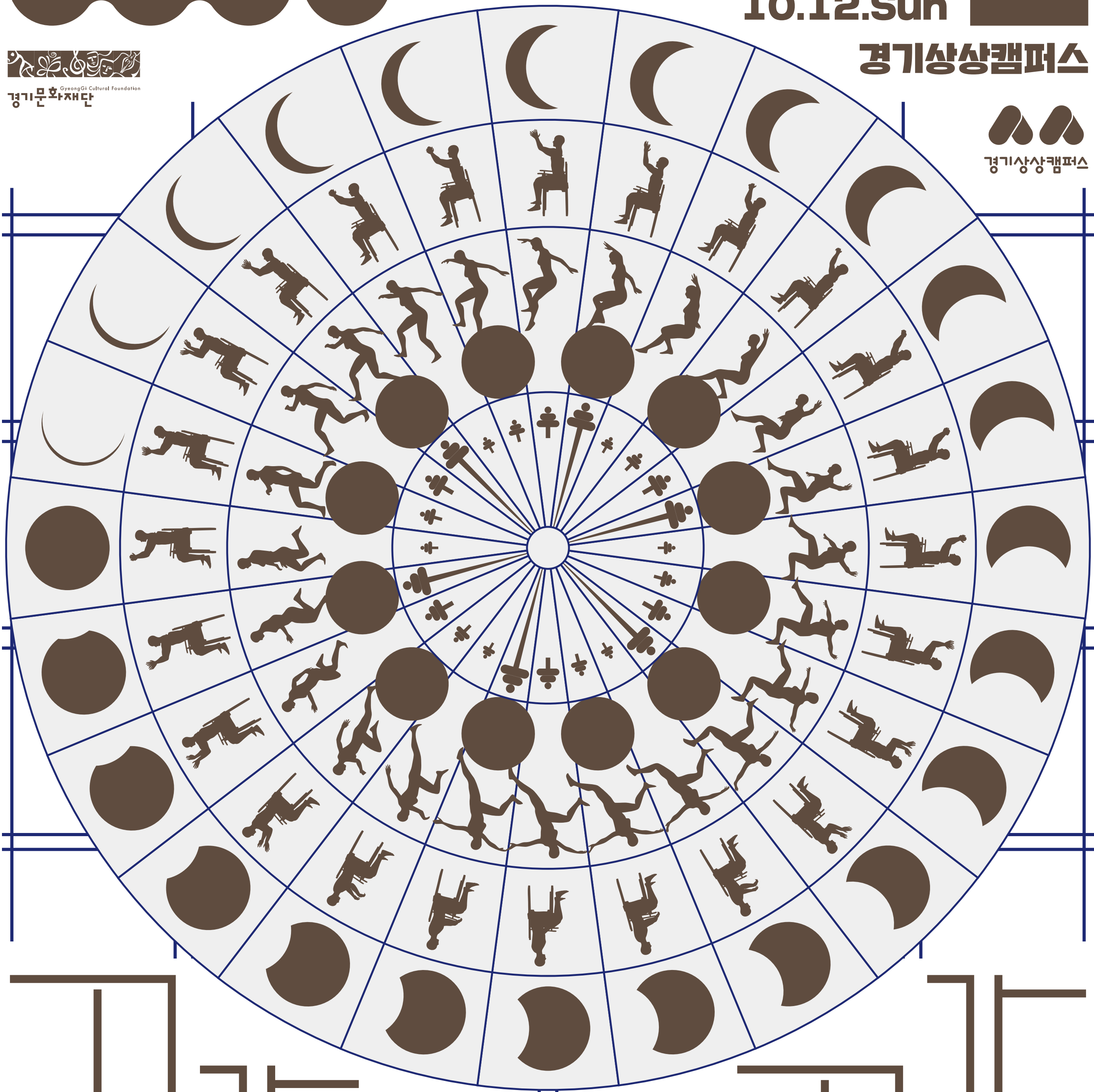
경기상상캠퍼스



경기문화재단



경기상상캠퍼스



# 고고기가 인류에게 보낸 무한한

25.9.20.Sat-  
10.12.Sun

경기상상캠퍼스



경기문화재단



경기상상캠퍼스





# 공연 타임 레이블

## 10.11 토요일

| 시간          | 아티스트 및 프로그램명             | 위치     |
|-------------|--------------------------|--------|
| 11:00       | 노영아 몸짓으로 FULL FULL       | site 2 |
| 11:00-18:00 | 천근성 다람쥐 택시               | site 4 |
|             | 제너럴쿤스트 우리 나무들의 집         | site 3 |
|             |                          | site 1 |
| 12:00       | 서커스 디랩<br>더 해프닝쇼, "마이드림" | site 1 |
|             | 자리 1/4평의 시간 (전시)         | site 4 |
|             | 초록소 씨씨씨씨씨(Five seeds)    | site 1 |
| 12:30       | 감자피아 감자전 3막              | site 4 |
| 13:30       | 창작중심 단디 나무의자             | site 2 |
| 14:00       | 극단 여기, 우리 해피 버블리         | site 1 |
| 14:30       | 아이모멘트 잉여의 도시             | 교육1964 |
| 15:00       | 서커스 디랩<br>더 해프닝쇼, "마이드림" | site 1 |
|             | 초록소 씨씨씨씨씨(Five Seeds)    | site 1 |
|             | 자리 1/4평의 시간 (공연)         | site 4 |
| 16:30       | 리타이를 초대                  | site 2 |
| 17:00       | 음악그룹 더툰 길가랑 유랑           | site 1 |

## 10.12 일요일

| 시간          | 아티스트 및 프로그램명          | 위치     |
|-------------|-----------------------|--------|
| 11:00       | 노영아 몸짓으로 FULL FULL    | site 2 |
|             | 우주마인드프로젝트 미래, 도시      | site 4 |
| 11:00-18:00 | 천근성 다람쥐 택시            | site 4 |
|             | 제너럴쿤스트 우리 나무들의 집      | site 3 |
| 12:00       | 자리 1/4평의 시간           | site 4 |
|             | 에이런크루 다함께 힙합          | site 4 |
| 12:30       | 초록소 씨씨씨씨씨(Five seeds) | site 1 |
|             | 연리목 회상의 회선            | site 4 |
| 13:00       | 극단 여기, 우리 해피 버블리      | site 1 |
| 13:30       | 감자피아 감자전3막            | site 4 |
| 14:30       | 창작중심 단디 나무의자          | site 2 |
|             | 아이모멘트 잉여의 도시          | 교육1964 |
| 15:00       | 우주마인드프로젝트 미래, 도시      | site 4 |
|             | 자리 1/4평의 시간           | site 4 |
| 15:30       | 초록소 씨씨씨씨씨(Five seeds) | site 1 |
| 16:00       | 리타이를 초대               | site 1 |
|             | 강제욱 사물들의 우주           | site 4 |
| 16:30       | 에이런크루 다함께 힙합          | site 4 |
| 17:00       | 음악그룹 더툰 길가랑 유랑        | site 1 |



# 극단 여기, 우리 해피 버블리

사색의동산  
10.11.(토) 14:00  
10.12.(일) 13:00



## 아티스트 소개

극단 <여기, 우리>는 마임, 퍼포먼스, 연주, 연극 등 다양한 예술을 통해 관객과 가까이 소통하는 공연을 선보인다.

다양한 시각적 요소로 상상력 넘치는 무대를 만들며, 관객과 진정한 교감과 공감을 중요하게 여긴다.

세상의 모든 엄마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평범한 일상 속 빛나는 이 순간을 '여기,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따스함으로 채워가고자 한다.

연출 김유인

퍼포머 김유인

## 작품 소개

환상동화 속에 있는 것 같은 아름다운 비눗방울과 깜짝 놀랄만한 신비한 저글링까지! 무한 행복함 속으로 빠져드는 공연 <해피 버블리> !

유모차와 함께 등장한 여인이 비눗방울, 마임, 저글링, 마술 등의 퍼포먼스 기술들을 유쾌하게 선보인다.

마음 따뜻한 환상 동화 속에서 관객과 함께 즐거운 이야기들을 만들어 간다.

# 음악그룹 더툰 길가랑 유랑

사색의 동산  
10.11.(토) 17:00  
10.12.(일) 17:00



## 아티스트 소개

직관적으로 노래하는 보컬과 원시성이 강한 타악, 건반, 피리, 태평소를 중심으로 강렬한 에너지와 이미지가 보이는 음악으로 전통음악의 역동적 에너지를 무대화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독특한 보컬의 보이스감수성이 돋보이는 더툰은 흡입력있는 관객과의 라이브 에너지 교감을 바탕으로 국내외 음악씬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통타악 이성순   퍼커션   정규하  
보컬   고현경   건반   이유진

## 작품 소개

깊이있는 전통음악의 역사를 속도감 있는 현재의 시간에 대입,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한 감각들로 국내외 관객을 매료시킨 폭발적인 라이브 에너지!

# 서커스디랩 더 해프닝쇼 마이드림

사색의 동산  
10.11.(토)  
12:00, 15:00



## 아티스트 소개

2010년도 저글링, 서커스를 만나며 독학으로 서커스 작품을 제작 하였으며, 지난 시간 동안 서커스 작품 7편을 내놓았을 정도로 쉬지 않고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단순한 기예를 시작으로, 서커스 행위를 하는 인물에 대한 연구와 광대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지금의 시대, 그리고 사람들을 고민한다.

저글링 및 서커스의 오브제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와 노력으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장면들과 드라마 설정으로 현시대의 서커스 공연물을 만들고자 한다.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아티스트들과 네트워킹을 하며 작품을 나누고 있고, 현재 라스베이가스, 싱가포르, 일본, 대만, 영국, 호주, 말레이시아등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아티스트들과 다양한 작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서커스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작업을 이어나가며 새로운 장르를 개척중이며, 지속적인 창작 활동으로 대중을 만나고 있습니다.

서커스 아티스트      함서울

## 작품 소개

잃어버린 꿈을 쫓아가는 광대의 서커스 드라마  
광대의 반복되는 삶에 꽃이 찾아온다.

꽃을 하나씩 만날때마다 점차 자신의 잊혀진 꿈을 떠올린다.

꿈을 찾아 여정을 떠나는 광대의 서커스 공연.

# 창작중심 단디 나무의자

생생1990 주차장  
10.11.(토) 13:30  
10.12.(일) 14:30



## 아티스트 소개

창작중심 단디는 2013년 창단되어 버티컬, 에어리얼 퍼포먼스를 전문으로 창작 및 공연 활동을 하고 있다. 건물 외벽이나 공중, 하늘을 무대로 하여 줄에 매달린 채 움직임을 기반으로 한 배우들의 동작과 연기, 오브제를 활용한 이야기 전달을 주요 표현 양식으로 창작한다. 유럽이나 북 미에서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양식을 아시아에서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단체이다. 장르의 특성상 주로 도시의 광장이나 건축물을 공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대형 트러스 구조물, 크레인 등을 작품에 활용한다. 현재까지는 주로 야외 공간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도시의 대표 축제들에서 개·폐막작으로 초청되어 공연하며 시민참여의 창작 방식을 적극 도입하여 활동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공동창작 안의숙, 김지정    기술감독 황성탁  
퍼포머 안의숙, 김지정    진행 정건영

## 작품 소개

<나무의자>는 버티컬 퍼포먼스라는 공중예술의 언어로, 기다림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본질을 탐구한다. 두 배우의 움직임은 공중에서 균형을 버티며, 때로는 홀로 서고, 때로는 서로 기대어 존재의 무게를 나눈다. 『나무의자』는 결국, 기다림과 버팀, 그리고 기댐 속에서 발견되는 인간다움의 가능성을 공중 위에 새겨 넣는다.

# 리타이틀 초대

생생1990 주차장  
10.11.(토) 16:30  
10.12.(일) 16:00



## 아티스트 소개

리타이틀은 움직임을 통해 공간에 새로운 일루전을 그려내는 거리무용 예술단체이다. 거리와 극장, 무대와 객석, 장르와 장르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다름'이 가지는 유의미한 가치를 일상의 공간에서 이야기해오고 있다.

|     |     |       |                    |
|-----|-----|-------|--------------------|
| 연출  | 양석진 | 안무/출연 | 양석진, 권주혁, 이재명, 유정훈 |
| 조연출 | 이재명 | 프로듀서  | 강유진                |

## 작품 소개

당신을 초대한다.  
이웃들과 삼삼오오 모이던 주택단지 사이의 공원,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던 놀이터까지.  
서로를 편안히 바라보며 목소리 내는 법을 잃어버린 오늘.  
그 공간을 빼앗은 우리로부터 공간을 되찾아, 이 곳으로 당신을 초대한다.

# 감자피아 감자전 3막

공작1967 앞 데크  
10.11.(토) 12:30  
10.12.(일) 13:30



## 아티스트 소개

일상에서의 행동을 작업으로 연결한다. 직접 만질 수 있거나, 맛볼 수 있는 걸 믿는 편이다.

곳곳에서 공연 비슷한 걸 만들려 노력하고, 공연성에 대해 계속 생각한다.

감자 재배하고 대화 나누기

김노아, 김수연, 김성철

신해운, 유은정, 이재원

기획하고 밭 일구기

이성직

웹 일구기

임오성(Re-Look)

북돋기

신재욱, 이호연

## 작품 소개

2020년, 2022년에 이은 세번째 감자전 프로젝트. 공공공간, 경기상상캠퍼스에 몇 몇의 수원 시민과 함께 감자를 재배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를 기록하는데 이 과정이 공연으로 자라난다. 그리고 이 공연은 "그동안 공연이 감자에 너무 앞섰던건 아닌가?"라는 자기 질문에 대한 느슨한 응답이고, 올해는 비가 잦아 감자 밭에 따로 물을 줄 필요가 적어졌다.

# 자리

## 1/4평의 시간

공작1967 앞  
10.11.(토) 15:00  
10.12.(일) 15:00



### 아티스트 소개

자리는 기억, 정서, 시간이 깃든 이야기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일상적인 경험이 갖는 보편성에 주목한다. 일상에서 발견한 삶의 조각들을 '느리게 흐르는 시간' 속에 담아 관객들과 진한 공감과 연대를 나누고 있다.

주요작품으로는 이동형 관객참여퍼포먼스 '이상한털 조꼬띠클럽'과 하소정의 기존작 '1/4평의 시간' 등이 있다

|            |     |
|------------|-----|
| 창작/연출/출연   | 하소정 |
| 기술감독/드라마터그 | 송재훈 |
| 음향/진행      | 문소울 |

### 작품 소개

삶을 채우는 '일'과 '노동',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나와 우리'의 이야기  
분주한 도심 속 작은 공간, 작업대에 앉아 나무를 깎는 이 앞에 한 몸 겨우 누일 수 있는 1/4평 남짓한 관 하나가 놓여있다. 종일 이어지는 노동의 시간은 그만큼의 칼밥이 되어 앞에 놓인 관 안에 쌓인다. 일몰과 함께 찾아온 노동의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 '일이란 나에게 무엇이고, 어떤 내일이길 바라는가!'

'1/4평의 시간'은 매일의 노동에 지친 모든 이들, 시간의 폭압적 흐름에 저항하며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깊은 호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한다.

# 연리목 회상의 회선

공작1967 복도  
10.12.(일) 12:30



## 아티스트 소개

연리목은 한국의 음악가다. 2002년 밴드 '눈뜨고코베인'의 키보디스트로 처음 무대에 섰고, 연극과 무용 음악을 만드는 무대 음악 작곡가이자 연주자로 활동했다. 2012년 영화 <은교>의 음악을 맡으며 영화음악감독으로 영역을 넓혔고, 이후 지금까지 16편의 영화음악을 제작했다. 같은 해에, 거리음악극단 '음악당 달다'를 창단하여 <랄랄라쇼>, <랄랄락으로 클리닉> 등의 공연을 선보이며 현재까지 활발히 활동중이다.

|        |          |
|--------|----------|
| 기획/연출  | 연리목      |
| 오브제 제작 | 마린보이     |
| 연주     | 연리목, 최영두 |

## 작품 소개

전시 기간 동안 다섯 대의 전화기에서 들었던 노래들을 라이브로 만난다. 전시 관람객들이 남긴 녹음 메시지와 메모를 공연에서 재구성한다. 이를 통해 '기억'의 모음을 여러 방법으로 감각하게 한다.

# 에이런 크루 다함께 힙합

이동형 공연  
공작1967 복도  
10.12.(일) 12:00, 16:30



## 아티스트 소개

에이런크루(A-Run Crew)는 브레이킹을 중심으로 한 스트리트댄스의 역동성과 독창성을 바탕으로 대중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고자, 브레이킹만의 강렬한 퍼포먼스를 거리예술의 형태로 확장하여 관객들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경험하고 스트리트댄스의 예술적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는 예술단체이다.

|         |                    |
|---------|--------------------|
| 연출      | 윤종연                |
| 사운드 디자인 | 황선진                |
| 퍼포머     | 서진호, 양재원, 이가형, 장원우 |

## 작품 소개

강인하게 거만하고 꺾렁하게 용기내어 힙합  
'언제나 힙합'은 일시적인 공동체인 '크루'의 일원이 되어 솔직한 언어로 몸의 욕망을 드러내는 참여형 공연이다. 크루들은 때로는 꺾렁하게 강인함을 보여주고, 거만하게 자심감을 드러내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를 보여주고,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선언한다. '언제나 힙합'은 함께 일탈하고, 뛰고, 춤추면서 경험하는 '놀이'이다.

# 아이모멘트 잉여의 도시

이동형 공연

교육1967

10.11.(토) 14:30

10.12.(일) 15:00



## 아티스트 소개

아이모멘트는 거리와 공공공간에서 작품을 발표하며, 공간과 장소를 매개하는 여러 기억을 작품의 소재로 삼는다. 도시, 공간, 사람, 사물, 몸, 움직임을 주요 도구로 사용하며 시적 은유를 통해 일상의 공간을 바라보거나 탐색한 곳곳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공유한다. 공연을 통해 관객과 함께 장소의 이야기에 깊이 잠기고, 이내 도시와 사회를 가로지르는 작은 커뮤니티를 만들기 바란다.

|      |     |       |                    |
|------|-----|-------|--------------------|
| 연출   | 노제현 | 설치/제작 | 신재욱                |
| 프로듀서 | 임현진 | 퍼포머   | 강민지, 노제현, 이예진, 이지형 |

## 작품 소개

어떤 나머지를 찾아 떠나는 잠깐의 도심 여정. 낙오된, 구석진 가장자리를 지키고 있던 존재들이 살고있는 낯선 도시를 가정하며 미지의 도시를 탐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여정이 펼쳐진다.

작품은 내밀하고도 낯선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상상하며 우리가 외면하거나 보지 않았던 곳을 '잉여의 도시'라는 공간으로 가시화한다. 도시의 공간에 시를 덧입히고, 공간과 장소에 대한 기존의 생각에 질문을 던지며 일시적인 점거와 점유, 선언을 실험한다. 관객들은 잉여가 상징하는 일종의 불완전함이 지닌 생각지 못한 가능성을 잠시 함께 탐험해본다.

# 초록소 씨씨씨씨씨 (Five Seeds)

이동형 공연 운영부스  
10.11.(토) 12:00, 15:00  
10.12.(일) 12:30, 15:30



## 아티스트 소개

컴퍼니 '초록소'는 동시대의 위기, 특히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를 예술적으로 재해석하는 컨템포러리 기반의 실험예술 연구 콜렉티브이다. 무대와 거리, 자연과 도시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업을 통해 관객에게 감각적 경험과 생태적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고자 하며, 서커스 특유의 물리성과 균형감, 동작의 위험성과 협업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불안정한 사회 구조와 생태적 위기의 가능성을 오브제와 신체로 표현한다. 초록소는 인간과 자연, 기술과 신체, 고립과 연대 사이의 긴장을 실험하며, 관객이 예술을 통해 변화의 가능성을 감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지속해 나간다.

|       |                    |      |      |        |     |
|-------|--------------------|------|------|--------|-----|
| 구성/연출 | 정성택                | 기획   | 배수진  | 안무/사운드 | 양설희 |
| 오브제   | 위주리                | 사진기록 | 박김형준 | 코디네이터  | 김재은 |
| 퍼포머   | 김하정, 도효성, 양설희, 최경이 |      |      |        |     |

## 작품 소개

작품 <씨씨씨씨씨(Five Seeds)>는 각기 다른 시간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씨앗'에 비유한 이동형 댄스 시어터다. 삶의 균열 속에서도 다시 뿌리내리고 자라나는 청년들의 성장과 연대의 서사를 담는다. 공연은 씨앗의 생장 단계를 따라 '숲(발아)-건축구조(균열과 성장)-광장(개화와 공동체)'으로 구성된다. 관객은 배우와 함께 경기상상캠퍼스의 다양한 공간을 이동하며 시간의 흐름을 감각적으로 경험한다. 무선 헤드폰을 통해 퍼포머의 호흡, 텍스트, 사운드에 몰입하며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넘는다. 퍼포머들은 신체, 오브제, 사운드로 청년기의 정체성, 불안, 연결, 회복을 풀어낸다.

# 고고고기 • 인류페스티벌

25.9.20.Sat-  
10.12.Sun



경기문화재단

경기상상캠퍼스



경기상상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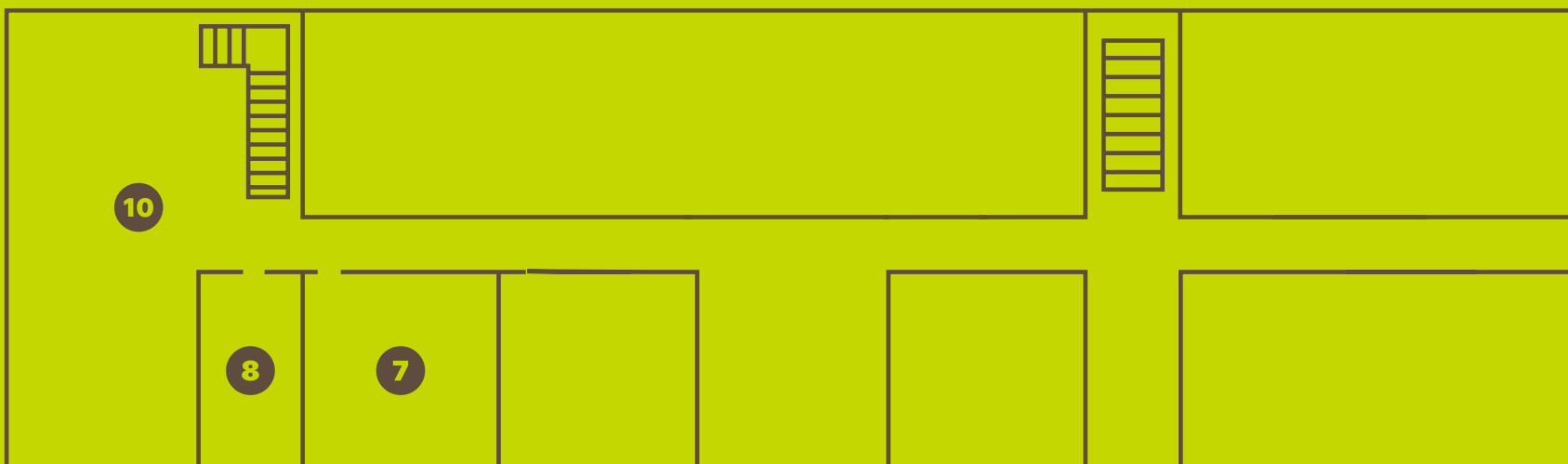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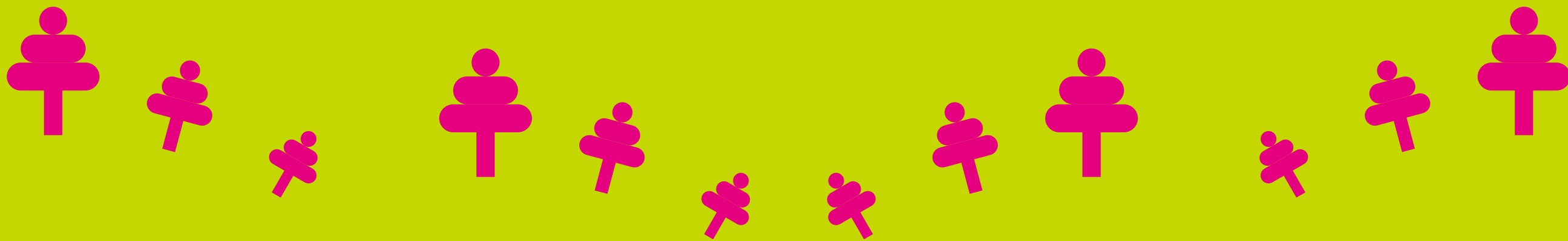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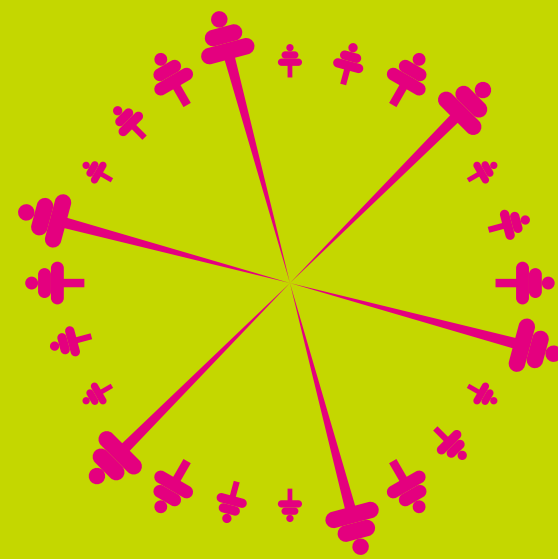
# 피피

전시

# 공공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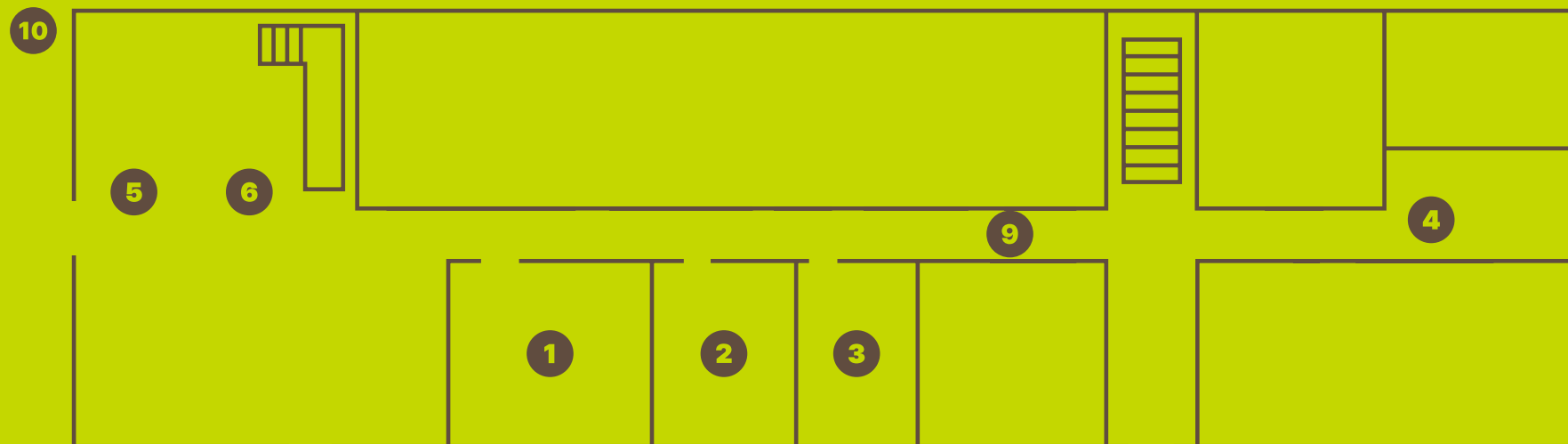
# 전시



2F

## 청년1981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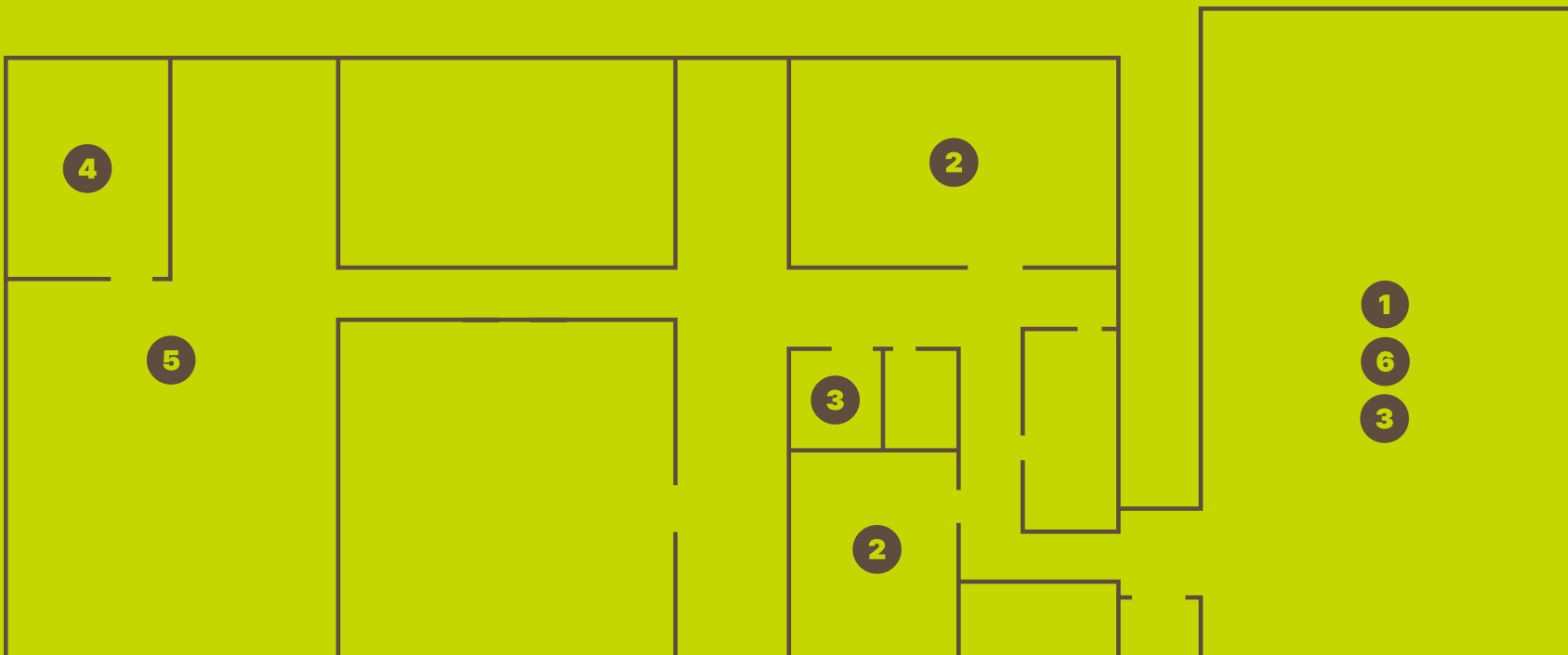
- ⑦ 다정한 식물 사랑의 레몬
- ⑧ 황연주 H양의 그릇가게-  
당신의 기념품과 나의 추억
- ⑩ 연리목 회상의 회선



1F

## 청년1981 1층

- ① 그라운드 코모 플리크
- ② 제너럴 쿤스트 우리 나무의 집
- ③ 자리 1/4평의 시간
- ④ 조음기관 인간의 사물화
- ⑤ 무모 백만송이 모뉴먼트
- ⑥ 어린이 날다 사회적협동조합 한글 날다
- ⑨ 초록소 청년의 씨앗



## 공작1967

- ① 강제옥 사물들의 우주
- ② 노메이드랩 콜라보 콜렉티브
- ③ 연리목 회상의 회선
- ④ 지역예술 재료 연구소 어디로 튈지 모르는
- ⑤ 우주마인드프로젝트 미래, 도시
- ⑥ 천근성 다람쥐 택시

# 전시 위치 안내

| 아티스트 및 프로그램명                      | 위치                          |
|-----------------------------------|-----------------------------|
| 이지형 x 나무 타는 목수들 유물들               | 사색의 동산                      |
| 그라운드 코모 플리크                       | 청년 1981 ❶                   |
| 제너럴쿤스트 우리 나무들의 집                  | 청년 1981 ❷                   |
| 자리 1/4 평의 시간                      | 청년 1981 ❸                   |
| 조음기관 인간의 사물화                      | 청년 1981 ❹                   |
| 무모 백만송이 모뉴먼트                      | 청년 1981 ❺                   |
| 어린이날다 사회적협동조합 한글 날다               | 청년 1981 ❻                   |
| 다정한 직물 사랑의 레몬                     | 청년 1981 ❼                   |
| 황연주 H 양의 그릇가게 -<br>당신의 기념품과 나의 추억 | 청년 1981 ❽                   |
| 초록소 청년의 씨앗                        | 청년 1981 ❾                   |
| 강제욱 사물들의 우주                       | 공작 1967 ❶                   |
| 노메이드랩 콜라보 콜렉티브                    | 공작 1967 ❷                   |
| 연리목 회상의 회선                        | 공작 1967 ❸<br>청년 1981 ❿ , 야외 |
| 지역예술재료연구소 어디로 튈지 모르는              | 공작 1967 ❹                   |
| 우주마인드프로젝트 미래 , 도시                 | 공작 1967 ❺                   |
| 천근성 다람쥐 택시                        | 공작 1967 ❻                   |

# 자리 1/4평의 시간

site 3

102호

## 아티스트 소개

자리는 기억, 정서, 시간이 깃든 이야기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일상적인 경험이 갖는 보편성에 주목한다. 일상에서 발견한 삶의 조각들을 '느리게 흐르는 시간' 속에 담아 관객들과 진한 공감과 연대를 나누고 있다. 주요작품으로는 이동형 관객참여퍼포먼스 '이상한털 조꼬띠클럽'과 하소정의 기존작 '1/4평의 시간' 등이 있다

## 작품 소개

삶을 채우는 '일'과 '노동',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나와 우리'의 이야기 분주한 도심 속 작은 공간, 작업대에 앉아 나무를 깎는 이 앞에 한 몸 겨우 누일 수 있는 1/4평 남짓한 관 하나가 놓여있다. 종일 이어지는 노동의 시간은 그만كم의 칼밥이 되어 앞에 놓인 관 안에 쌓인다. 일몰과 함께 찾아온 노동의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 '일이란 나에게 무엇이고, 어떤 내일이길 바라는가.'

'1/4평의 시간'은 매일의 노동에 지친 모든 이들, 시간의 폭압적 흐름에 저항하며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깊은 호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한다.

# 제너럴쿤스트 우리 나무들의 집

site 3

101호

## 아티스트 소개

제너럴쿤스트는 작가 이혜령이 유무형의 형태로 운영하는 시공간이다. 전문 배우가 없는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를 만든다. 극장 바깥에서 극장 규범을 통과하지 못한 관객들-너무 많아!-이 갈 수 있는 곳, 할 수 있는 일, 볼 수 있는 것을 탐색하는 데 탐색하는 데 관심을 둔다. 최근에는 거리와 광장이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라는 낙관적 시선에 의해 소외 되어온 존재, 구역, 언어, 시선 등에 주목한다.

## 작품 소개

우린 귀엽지 않아. 우린 아주 진지해. 이 작업은 작가 이혜령이 꾸준히 이어오는 시위 형태의 퍼포먼스인 <피켓라인> 시리즈의 일환이다. 주장과 애도와 축제가 혼재한 거리의 언어, 시위를 예술적인 언어로 가져와 다양한 개인들과 함께 구성한다. <우리 나무들의 집>은 어린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퍼포먼스다. 귀엽고 부드러운 인형을 통해, 어린이들은 지구를 지키기 위한 시위에 직접 개입하고 나무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시위라는 단어에 씌워진 거친 정치적 색을 벗겨내고 가장 근본적인 가치를 위해 함께 모여 이야기하는 방식의 중요성을 스스로없이 깨닫고 즐긴다.



# 그라운드 코모 플리크

site 3 105호

## 아티스트 소개

그라운드 코모는 경험이 자라는 공간을 짓는 단체이다. 우리는 완결된 작품이 아닌, 누구든 들어와서 채울 수 있는 여백이 가득한 공간을 짓는다. 우리의 공간은 공연, 혹은 놀이책, 때로는 전시의 모습으로 다양하게 펼쳐진다. 이 공간에서 놀이가 동사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어린이들과 늘 다양한 경험을 도모한다.

## 작품 소개

아주 작은 세계 속 작은 존재들을 함께 관찰하는 참여형 전시 어린이극 어린이들에게 지금의 세계는 다소 높고, 크다. 이런 어린이들이 아주 작은 존재를 만나게 되면 자세는 어떻게 변하며, 어떤 감각을 느끼게 될까? 플리크는 아주 작은 존재이다. 애정을 담아 자세히 들여다보고, 관찰해야 만날 수 있다. 어린이들은 돋보기를 들고 플리크의 다양한 세계를 탐험하며 관찰자가 된다. 그렇게 작은 세계를 들여다보며 자연스럽게 애정 어린 시선을 갖게 된다.

# 무모 백만송이 모뉴먼트

site 3

근생홀



## 아티스트 소개

조형물 작품과 커뮤니티 아트로 정의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작품을 단체와 관객이 함께 창작하거나 인터랙티브 요소가 들어있는 작품으로 작가와 대상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업을 고민한다.

## 작품 소개

경기상상캠퍼스 곳곳 아주 작은 백 개의 모뉴먼트(조형물)를 '비밀'스럽게 설치하고 숨은 조형물을 발견하는 재미를 주는 전시를 한다. '아츠페스티벌'에 방문한 모든 분(어린이, 성인 등)들과 함께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자신만의 '장소'를 찾아 작은 점토 조형물(작품)을 현장에서 만들어 설치한다. 설치된 조형물은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이 과정은 온라인에 기록으로 남아 소멸 이후 '흔적' 역시 전시된다.

# 노메이드랩 콜라보 콜렉티브 - Collabo Re:Collect

site 4 107, 109호



## 아티스트 소개

노메이드랩(nomadelab)은 독립출판을 기반으로 경계를 흔들고 새로운 언어를 모색하는 아트랩이다. 출판을 중심으로 다양한 예술 프로젝트를 기획·실행하며, 장르와 매체를 넘나들며 창작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 작품 소개

Archive as Art, Art as Archive – 낱장으로 분해된 책은 기록이자 작품이며, 전시는 기록과 창작, 아카이브와 예술의 경계를 탐구하며 이들의 순환적 관계를 구조에 담아낸다.

# 어린이날다 사회적협동조합 한글 날다

site 3

근생활



## 아티스트 소개

"아이를 닮은 예술가, 예술가를 닮은 아이"를 꿈꾸며 어린이를 사랑하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어린이가 상상한 모든 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FLY-GROUND를 펼친다. 작품 소개 K-한글의 과학적인 아름다움과 한국의 탑을 모티브로 만든 작품으로 놀이와 퍼포먼스를 즐긴다.

## 작품 소개

K-한글의 과학적인 아름다움과 한국의 탑을 모티브로 만든 작품으로 놀이와 퍼포먼스를 즐겨보자

# 조음기관

## 인간의 사물화



### 아티스트 소개

조음기관은 그간 인형을 활용한 공연에서의 인형의 쓰임을 답습하지 않고, 무대 위 인형의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으로 인형을 소환한다. 장면별, 인물에 맞는 인형의 형식을 취하고, 인형의 시선을 무대, 연극적 언어로 표현한다. 또한 인형 작업에 관한 선언문에 기인하는 작업 방식을 지향한다.

### 작품 소개

이번 작업은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을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동등하게 바라보고자 한다. 이 중심에는 인간을 인형으로 대상화하여 해체와 재조립을 통해 사물화 과정을 거친다. 인간의 형태로 조립된 인형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형태, 즉 인형은 최소한의 단위로 조각날수록 사물에 가까워진다. 이러한 과정은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경험이 된다. 전시 공간에는 지원자의 다양한 인형이 전시된다. 인형(인간)은 사물화를 거치며 다른 사물과 동등한 존재로 바라본다. 전시 구역과 체험 구역이 나뉘지며, 해당 공간에는 해당 인형(사물)을 설명하는 극작가의 글과 음악감독의 사운드가 존재한다.

# 지역예술재료연구소 어디로 튼지 모르는

site 4 무용연습실 내 창고

## 아티스트 소개

지역예술재료연구소는 지역, 예술, 재료의 관계를 탐구한다. 우리는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시각, 연극, 음악 등 다양한 창작자들과 함께 작업하며 지역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출발하는 소재, 재료로 전시를 만들기도 하고 지역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지역이 갖는 문화적, 지역적 특성에 대해 연구하기도 한다. 땅만 파면 우물이 나온다는 '열우물 마을'을 감성적 아카이브로 선보인 <열우물 아카이브> 프로젝트와 재개발로 사라지는 노량진동의 기록을 다양한 매체로 선보인 <노량진 아카이브> 등을 진행했으며 자체적으로 지역을 기반한 예술재료를 발견하고 기록하는 웹아카이브 '은하서울'을 운영중이다.

## 작품 소개

탁구공의 감각적 리듬 소리 '핑퐁'과 라켓으로 주고받는 반복적인 행위 '루프(loop)'를 키워드로 선보이는 미술 전시이다. 경기상상캠퍼스가 자리한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의 옛 지명 '탑동'에서 착안한 이 전시는 기억과 시간이 쌓인 탑의 안정된 모양 위에 탁구의 운동성과 리듬을 더함으로써, 지역에서 발견한 예술재료와 감각을 새롭게 조명한다. 전시에서는 김준서 작가의 대형 설치작품 <탁구공 폭포>와 아이소핑크로 제작된 입체 작업 그리고 기획자가 리서치한 사진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이는 어디로 튼지 모르는 아이들의 놀이처럼, 가볍고 재밌게 우리의 일상을 튕겨보자는 제안이기도 하다.

# 황연주 H양의 그릇가게 - 당신의 기념품과 나의 추억

site 3

밍글링존

## 아티스트 소개

황연주 작가는 오래되고 낡아 쓸모를 잃은 사물들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하여 오래된 기억들로 인해 형성되는 사회적 공감대를 조명하며, 평범함 속에 감추어진 특별한 기억들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 작품 소개

예술과 일상의 간격을 좁혀 주는 물물교환 형식의 특별한 그릇가게.  
\*눈으로만 감상해 주세요.

# 우주마인드프로젝트

## 미래, 도시

site 4

무용연습실

### 아티스트 소개

우주마인드프로젝트는 탈극장 장소맞춤형 공연을 지향하는 <토커티브 비주얼 씨어터>다.

두명의 배우가 자기 서사를 바탕으로 다큐멘터리 연극을 창작한다. '사회'와 '개인' 사이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품고, 거대 담론 아래 현존하는 우리 삶의 이야기들을 동시대인들과 더 가까이에서 직접적이면서도 섬세하고 날카로우면서도 유쾌하게 그려낸다. 현존하는 배우의 신체, 움직임, 소리, 음성언어가 공간과 어우러지고 관객의 상상력이 더해지며 발생하는 다양한 이미지가 시적 시공간으로 확장되는 순간의 울림을 탐구한다.

### 작품 소개

'지금은 있지만 미래에 없어질 것들'에 대해 엉뚱하고 터무니없는 상상을 펼치는 관객 참여형 전시/공연이다. 미래에 무엇이 없어질지, 무엇이 없어지면 좋겠는지, 무엇이 없어지지 않길 바라는지 등 미래의 모습을 자유롭게 상상하며 터무니없는 낙서를 하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다. 우리의 현재는 어떤 미래를 향하고 있는 걸까? 미래는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 수 있는 걸까? 그 속에서 작은 꿈을 발견할 수 있을까?



# 천근성 다람쥐택시

site 4 문서고

## 아티스트 소개

천근성은 거리, 시장, 광장 같은 일상 공간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과 관계를 예술로 엮어내는 작가이다. 전시장보다는 거리 현장에서, 정해진 무대보다는 우연한 순간 속에서 이야기를 만들어간다. 정해진 배역보다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보려는 그는, 세상에 없던 직업과 캐릭터를 스스로 만들어가며 작업한다. 그렇게 시작된 작고 기묘한 행동들은 주변의 일상에 파문을 일으키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낯선 관계들이 피어난다 대표작으로는 「이웃집 홀리스」, 「햇가이 글루맨」, 「수원역전시장커피」가 있다.

## 작품 소개

다람쥐 택시는 사람과 숲 사이를 잇는 무탄소 택시이다. 엔진도 바퀴도 없이, 사람과 다람쥐가 함께 끌어야만 움직인다. 돈 대신 도토리야 이야기를 받으며, 관계를 나누는 새로운 경제를 시작한다. 빠르지 않지만 대신 함께 걷고 웃으며, 사람과 자연 사이의 순환과 얽힘을 다시 생각한다. 대화 없는 결제 시스템도, 목적지만 찍고 떠나는 서비스도 없다. 정속보다 박장대소를 환영한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와 함께 숲길을 달리게 될까?

# 다정한 직물 사랑의 레몬

site 3 201호



## 아티스트 소개

다정함의 미학을 담아 건강한 섬유를 제작한다.

## 작품 소개

서로 다른 존재가 만나 하나가 되는 사랑을 이야기하며,  
레몬의 사랑으로 보라색 천을 핑크로 물들이는 관객참여형 전시이다.

# 초록소 청년의 씨앗

site 3 곳곳

## 아티스트 소개

컴퍼니 '초록소'는 동시대의 위기, 특히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를 예술적으로 재해석하는 컨템포러리 기반의 실험예술 연구 콜렉티브이다. 무대와 거리, 자연과 도시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업을 통해 관객에게 감각적 경험과 생태적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고자 하며, 서커스 특유의 물리성과 균형감, 동작의 위험성과 협업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불안정한 사회 구조와 생태적 위기의 가능성을 오브제와 신체로 표현한다. 초록소는 인간과 자연, 기술과 신체, 고립과 연대 사이의 긴장을 실험하며, 관객이 예술을 통해 변화의 가능성을 감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지속해 나간다.

## 작품 소개

본 전시는 경기상상캠퍼스에 남아 있는 청년들의 흔적에서 출발한다. 땅 위에 놓인 '씨앗'은 청년의 불안과 희망, 그리고 다시 자라날 가능성을 담고 있다. 이 씨앗 앞에 멈추어 서서, 자신의 청년 시절과 지금의 마음을 겹쳐볼 수 있다. 작품 옆 QR코드를 통해 더 깊은 이야기를 듣고, 다가올 공연과 연결될 수 있다. 당신이 바라보고 듣는 순간, 청년의 씨앗은 또 하나의 새로운 순환을 시작한다.

# 이지형 x 나무라는 목수들 유물들

사색의 동산

## 아티스트 소개

이지형은 인간 중심의 공연에서 벗어나, 인형/오브제 중심의 공연을 시도하고 있다. '인형의 본질적인 소리(언어)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간 인형을 활용한 공연에서의 인형의 쓰임을 답습하지 않고, 무대 위 인형의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으로 인형을 소환한다. 장면별, 인물에 맞는 인형의 형식을 취하고, 인형의 시선을 무대, 연극적 언어로 표현한다.

## 작품 소개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난 동등한 물질들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이 세상의 모든 물질(유물)들이 동등해 질 수 있는 공간은 과연 어디일까.  
순환을 통해 모든 물질이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태초의 시작점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로 이전의 물질들은 '유물'로 표한다.

# 연리목 회상의 회선

공공 라운지 주변, 청년1981 2층 외 야외공간



## 아티스트 소개

연리목은 한국의 음악가다. 2002년 밴드 '눈뜨고코베인'의 키보디스트로 처음 무대에 섰고, 연극과 무용 음악을 만드는 무대 음악 작곡가이자 연주자로 활동했다. 2012년 영화 <은교>의 음악을 맡으며 영화음악감독으로 영역을 넓혔고, 이후 지금까지 16편의 영화음악을 제작했다. 같은 해에, 거리음악극단 '음악당 달다'를 창단하여 <랄랄라쇼>, <랄랄락으로 클리닉> 등의 공연을 선보이며 현재까지 활발히 활동중이다.

## 작품 소개

전시는 상상캠퍼스 공간 곳곳에 설치된 다섯 대의 전화기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전화기에는 작가가 오래전에 겪은 이야기를 토대로 만든 음악들이 담겨 있다. 관객은 상상캠퍼스 곳곳을 거닐며 전화기를 찾아 수화기를 들어 음악을 듣는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자신의 기억을 소환하여 이야기를 꺼내놓으며 작품에 참여하기도 한다. 오직 전화기를 든 사람만 들을 수 있는 음악과 함께, '자신만의 작은 공간에 들어선 듯한 감각을 제공한다.

# 고고고기 · 아류페스티벌

25.9.20.Sat-  
10.12.Sun



경기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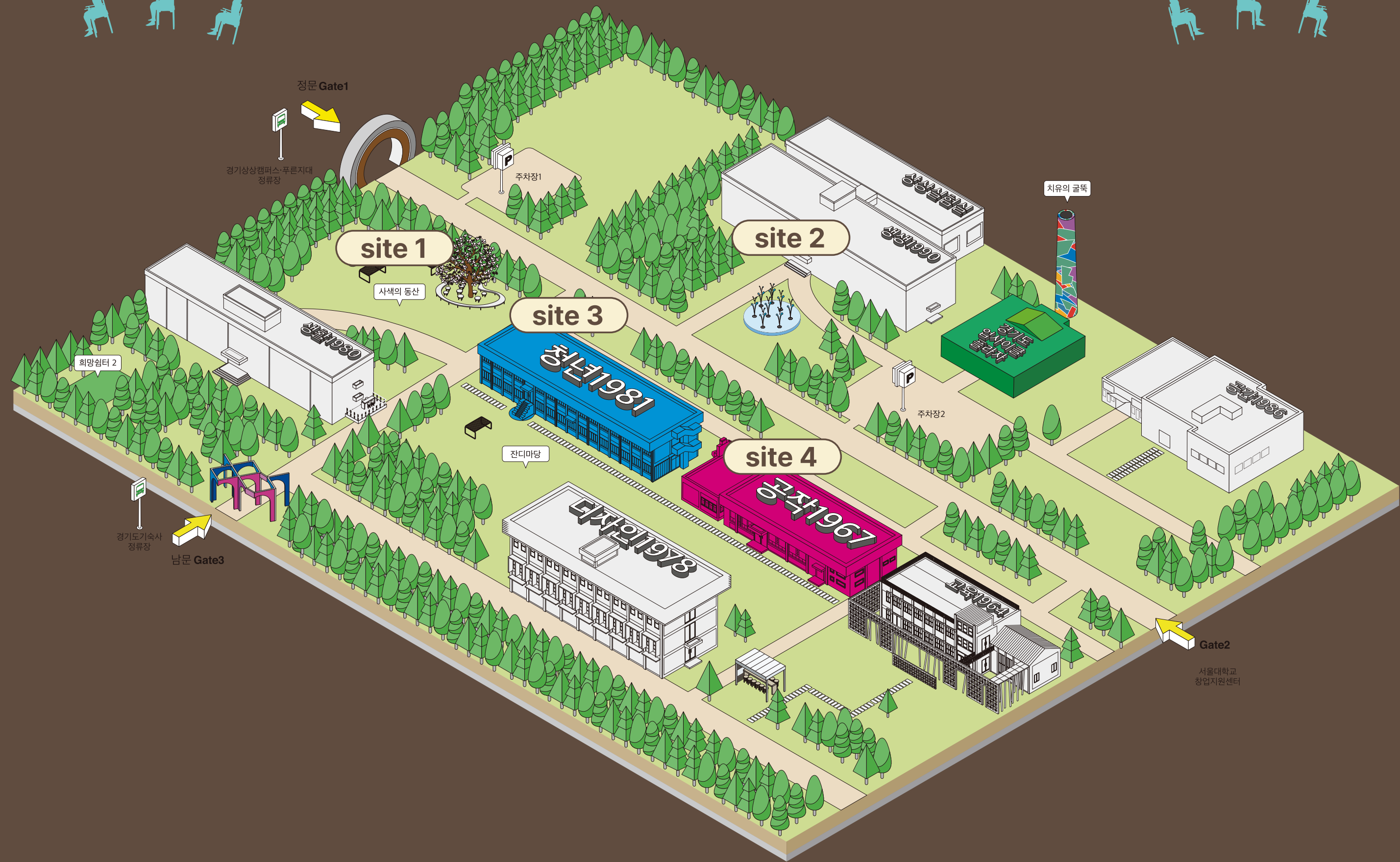
경기상상캠퍼스



경기상상캠퍼스

워킹홀리데이

공공기관



## ✓ 사전접수

## ☀ 현장접수

| 프로그램명                 | 운영일                    | 위치               |
|-----------------------|------------------------|------------------|
| ✓ 퍼블릭 하우스             | 9.20.(토)               | 청년1981<br>2층 러닝존 |
| ✓☀ 미래, 도시             | 9.20.(토),<br>10.4.(토)  | 공작1967 ⑤         |
| ☀ 백만송이 모뉴먼트           | 9.20.(토)-<br>10.12.(일) | 청년1981 ⑤         |
| ✓☀ 플리크                | 9.20.(토)-<br>10.12.(일) | 청년1981 ①         |
| ✓ 1/4평의 시간<br>나의 카빙일지 | 9.27.(토)-<br>28.(일)    | 청년1981 ③         |

| 프로그램명                        | 운영일                  | 위치               |
|------------------------------|----------------------|------------------|
| ✓ 1/4평의 시간                   | 10.11.(토)-<br>12.(일) | 공작동 앞            |
| ✓ 씨씨씨씨씨<br>(Five Seeds)      | 10.11.(토)-<br>12.(일) | 사색의 동산           |
| ✓ 몸짓으로<br>FULL FULL<br>풀어 풀어 | 10.11.(토)-<br>12.(일) | 생생1990 앞<br>바닥분수 |
| ✓ 사랑의 레몬                     | 10.11.(토)-<br>12.(일) | 청년1981 ⑦         |
| ☀ 사물들의 우주                    | 10.12.(일)            | 공작1967 ①         |



# 몸짓으로 FULLFULL 풀어풀어



## 아티스트 소개

노영아는 공간과 소리, 다양한 오브제를 활용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주제로 몸과 움직임의 언어를 탐구하는 예술가로 프로젝트 시공간의 상임연출이자 춘천마임학교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극장, 거리, 일상의 공간을 새롭게 해석하며 움직임의 표현을 확장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마임을 기반으로 한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실험하고 있다.

## 작품 소개

자연 속에서 몸짓으로 몸과 마음을 풀고, 서로의 마음을 FULL~하게 충전하는 시간!

자연의 공간 속에서 마임 예술을 기반으로 한 표현의 움직임과 서커스 요소(모자 저글링, 줄타기)를 활용한 감각놀이, 족욕과 함께 하는 즉흥 시 낭송과 차 한잔을 마시며 나, 나와 함께하는 너, 너와 함께하는 나를 느껴보는 시간이다.

# 장비치X젤리장 퍼블릭 하우스

site 3 러닝존



## 아티스트 소개

젤리장과 장비치는 개인의 일상적 감각에서 공공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팀이다. 이들은 도시 곳곳에서 사람들의 경험을 수집하고, 그것을 새로운 언어와 장면으로 되돌려준다. 캠페인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각자의 삶이 공공의 재료가 될 수 있음을 실험해 왔다. 현재는 '퍼블릭 하우스'를 함께 기획하며, 사적인 시간이 공공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공동으로 디자인하고 있다.

## 작품 소개

참여자들은 각자의 감각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통로로 경기상상캠퍼스와 축제를 탐색한다. 모두의 시간을 상징하는 보자기 위에 앉아 개인적인 감각을 각자 기록하고, 이를 서로 엮어 함께 하나의 공공 지도를 완성하며 일시적 공동체의 경험을 탐구하는 실험적 워크숍이다.